

1997년 11월 3일 월요일

□영통영덕지구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주거만을 위한 공간 이젠 싫다

문화와 자연을 고려한 복지지향적 도시형태 갖춰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은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서울 같은 수도권, 신도시 개념의 도시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 형성된 도시들은 주거민 복지 지향적인 선진국형 도시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다.

99만평부지에 2만6천8백90가구, 인구 10만명을 수용하게 될 수원영통영덕지구 또한 서울을 대체하여 생겨나는 준신도시로서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지하주차장 등 주요 공공물과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선진국형 주거공간형성도 머지않았다고 하겠다.

올 12월 전체 36개 아파트건설업체 중공, 한국산업개발, 삼호건설 등 22개 업체의 아파트 1만5천7백여가구의 입주로 대략적인 주거공간이 형성되는 영통지구는 경부고속도로와의 연계도로망, 경전철, 수도권 순환철도의 유치로 전국 어느 곳과도 바로 연결된다는 교통조건을 갖추게 되며 청명산과 영통자연공원이 옆에 있고 단지내 16%가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단지내 모든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어디든지 안전하게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해지며 5백평 상 규모와 종합병원, 1만평 규모의 어린이교통공원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영통지구 자체내 수요는 물론 삼성전자와 우리학교 수요까지 끌어들이는 점, 단독주택에 점포설치가 허용되지않는 점 등 영통지구내 상권분산의 우려가 없어 대규모 상업지구 형성도 예상된다. 단지내 분양중이거나 분양이 마무리된 상가가 4백여개, 현재 분양중인 사업지구 일반상가 1백개, 내년 분양 계획 중인 점포만해도 1천여개라는 수치가 대단위상업단지조성을 확실 시하고 있다.

영통지구에는 일반상가외에도 특화된 대형상업업체도 들어선다.

그랜드마트, 뉴코아 등 국내업체 이외에도 프랑스 '까르푸', 네덜란드 '마크로' 등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까지 진출한다. 지상 6층, 지하 6층 규모의 그랜드마트는 99년 개장 예정으로 공사기획, 진행중이며 지상 16층, 지하 6층의 뉴메리미쇼핑



▲10만명이 거주하게 될 아파트 공사 부지

타운도 99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라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으로 생기는 테마형 음식백화점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패스트푸드, 제과점, 테마식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부가시킬 목적으로 조성되는 3만1천5백평방미터규모의 근린공원에는 일반공원의 기능을 넘어서 교육의 기능과 자연보호기능이 부여된다. 올바른 교통습관 제도의 교육기능을 갖게되는 교통공원은 전국 최대규모로 조성되며 이 공원에는 전자시뮬레이션 게임이 가능한 실내교육장, 횡단보도와 교차로로 구성

된 모의시가지, 뛰어놀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동차충돌시험장, 자전거 주행의 이론과 실재를 교육할 수 있는 자전거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교통공원에는 이밖에 조정시설과 휴식녹지 등도 갖추어져 연간 8만4천8백여명의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교통체험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에코브리지도 설치될 예정이어서 공원건립에 있어 자연보호의 기능도 고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거만을 위한 기존의 생활공간의 개념은 이제 변하고 있다. 우리는 근래에 형성되는 신도시에서 이러한 상황을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공간조성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주거민 중심의 생활환경조성이 선진국형 도시로 나아가는 길임은 분명하지만 이후의 홍보부족,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던 타 신도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용운기자〉



경험 통한 질병의 치료

몇 달전 27세 되는 청년이 석달전부터 시작된 설사 때문에 종합검진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청년은 이미 석달 사이에 체중이 10Kg 정도 빠졌고 몇몇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도 받았는데도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증세는 그다지 호소하지 않았다.

일반 혈액검사를 비롯한 흉부엑스선 사진 등 각종 검사들을 시행하였다. 일주일 후 이 청년은 결핵균으로 온 몸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관지를 통하여 결핵균이 전파 되어 온 폐가 눈송이를 뿌려 놓은 듯이 허얇게 보였다. 소변에도 적혈구가 다수 검출되어 신장결핵을 의심케 하였고 요로엑스선 촬영을 시행하였더니 신장에도 결핵 병변이 있었다.

대장 엑스선 촬영 결과 대장의 여러 군데에서 결핵성 염증 반응이 나타났고 소장 엑스선 촬영을 하였더니 소장에도 결핵균으로 인한 병변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다. 곧바로 전신의 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결핵약을 투여하였고 2주 후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는 설사가 멈추고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 고마워 하였다. 이제 환자는 정상상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 몸 속에서는 질병이 시작되어 진행돼 큰 증세를 못느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폐결핵은 매우 심했는데도 고열이나 기침을 느끼지 못하였다. 아무리 지시제를 먹어도 멈추지 않던 설사도 항결핵제를 복용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멈추었다. 정확한 진단이 빠른 치료 효과를 거둔 경우이다.

얼마전 19세의 여학생이 하루 걸러 반복되는 오한과 고열로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지 알고 지냈는데 벌써 석주째라고 한다. 약국과,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고 계속된다고 한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하루 걸러서 수시간 동안 오한과 고열로 몹시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환생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지만 바쁘다고 하고 고열이 날 당시 외에는 너무도 멀쩡하기 때문에 입원을 거절하였다.

말라리아가 아닐까 하기도 생각해 보았지만 학생의 거주지나 최근의 행적이 말라리아가 걸릴 출현 지역이 아니었고, 장티푸스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열의 양상이 장티푸스 증세가 아니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을 생각하고 흉부엑스선 촬영을 비롯한 일반 혈액검사, 군 배양검사, 혈액 도말검사, 혈청검사 등을 시행하였지만 결과는 아무런 진단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고열이 2주 이상 계속되면서 1주일 이상 철저한 검사를 해도 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사들은 임시로 "불명열"이라고 진단한다.

이 학생의 경우도 결국 불명열이라고 진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명열의 많은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장티푸스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클로람페니콜을 처방하였다.

일주일 뒤에 다시 진찰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한 번 고열이 나고 난 뒤에는 다시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은 다시 일주일 정도 같은 약을 처방받고 교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사는 때로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경험을 통하여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의과대학 의학과〉

최현림 부교수

회기역 앞 현혈도우미 권혜자(43)씨 우리마을 지킴이 값진 사랑의 표현 헌혈



파란 잠바에 초록 모자를 쓰고 회기역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간장시키는 두 아주머니가 있다. "건강해 보이는데 헌혈 좀 하고가요"라며 아열한 미소로 다가오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헌혈의 집을 찾았다.

아는 사람의 권유로 95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는 권혜자(43)씨는 점점 쌓여져가는 날씨가 거의 무료봉사임에도 힘든 기색 하

나 내비치지 않는다. "처음엔 다리도 아프고, 사람을 대하는게 힘들어서 관둘려고도 했었죠"라며 특히 헌혈을 권하면 간혹, 더러운 벌레라도 묻었다는 듯이 거칠게 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 속상하기도 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성과에도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두달마다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학생도 있고,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동네 아주머니들도 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헌혈을 하러 온 아저씨가 지금껏 모아온 자신의 헌혈증 한 묶음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며 놓고 가 유용하게 쓰기도 했다고 한다.

하루종일 길거리에서 힘든 줄 모르고 사람들을 붙들지만, 하루 평균 헌혈자는 25명 남짓.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저 호탕하게만 웃던 권씨는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 모를까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 웃음속에서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찬 밝은 회기동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김현종기자〉

사랑의 서가 호응도 높아

"몸이 편치 않으니 책이라도 보면 서 무료함을 달래드립니다."

경희의료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배부할 '사랑의 서가'를 모집한다. 현재 의료원내에는 30군데의 '사랑의 서가' 배부함이 있으며 환자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아 더 많은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Korea Life와 GEO, 시스템, 경희대 도서관, 윤승천 시인, 회기동 부녀회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으며 잡지의 경우 과월호를 50부에서 1백부 정도를 전달받고 있다.

의료원 총무과에서는 "사랑의 서가"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며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기쁨이다"라며 "점점 각박해져가는 사회지만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합쳐진다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독교사회, 불법체류 외국인 무료 수술

불법체류 외국인 무료진료를 해 오던 경희의료원에서 지난 24일 암에 걸린 방글라데시인 니잠 우딘(26)을 무료로 수술했다.

한달전 위장암 진단을 받았던 우딘은 의료보험이 안되는 불법체류 근로자로 병원비가 없어 절망에 빠졌다가 기독교사회(단장 김진우 교수)회원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게 되었다.

그는 수도권의 봉제 사출공장을 전전하며 월급 60여만원중 50만원만 매월 고향에 보낼 정도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 아랫배가 아픈것을 소화불량이라고 여기며 6개월간을

소화제로 버티다 증세가 악화되자 무료진료를 받은 후 암이라는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기독교사회는 우딘의 딱한 사정을 알고 무료수술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의료원 모자병원

현판식 개최

서귀포의료원(원장 고유경)과 우리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원장 김명재)은 지난 11일 모자병원 현판식을 가졌다.

또한 서귀포의료원회의실에서는 주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

정상 양민영 김덕용 교수의 성인병 건강강좌가 실시되었다.

회기동 환경정비 자원봉사

회기동사무소는 하루 13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면서 더럽혀지는 회기동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 환경정비 자원봉사 제도를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회기동사무소가 동네 74개 골목마다 주민추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책임자를 임명,그들에게 각 골목 청소를 맡겨주는 것이다.

또 21명의 청소 통신원을 따로 선발하여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곳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청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회기동사무소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깨끗한 회기동 거리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회기동사무소는 이번 제도

용인 기흥~수지 도로 신설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를 풍천리를 연결하는 5.3km의 도로를 2002년 말까지 신설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5백89억원을 들여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42번국도 영통지구 입구~수지를 풍천리 43번국도 두산 종합 연구소간 길이

5.3km,너비 20m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는 국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수원~수지 풍덕천간 43번 국도와 연달부터 영통지구 입구가 시작되면서 체중이 심해질 수원~신갈간 42번 국도의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도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의 무한질주, 1년

Heidelberg, Michelstadt, Köln, Stuttgart...

라인강변을 따라 산꼭대기의 고성들을 뒤로 하고

달리고 또 달렸다.

30,000Km에 이르는 아우토반 위에 서면, 무한 자유를 느꼈다.

1년간의 무한질주, 그리고 지역전문가로서의 무한자유 1년!

그 자유 속에서 처음 느낀 나만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웠고,

돌아오는 길엔 몰라 보게 지난 내 삶을 만날 수 있었다.

정병곤(삼성자동차, 독일지역전문가)

삼성은 인재를 키우는 일을 잠재력을 키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역전문가, Socio MBA, Techno MBA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당신을 인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SAMSUNG
삼성



"독일에서의 1년, 그 반은 자동차에서 보냈다"
-남부독일의 정취를 느끼며, München에서 Memmingen으로 가는 길에서-